변강쇠전

이윤수 원장_ 명동이윤수비뇨기과병원

우리나라 고전에도 보이지 않게 포르노 작품이 많다. 가장 걸출한 문학작품을 들라하면 단연 가루지기타령을 빼놓을 수 없다. 신재효가 개작한 판소리 6마당 중에 하나로 변강쇠타령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섹스커플은 단연 변강쇠와 옹녀라고 하겠다. 가히 국제적으로도 손꼽히는 섹스의 화신이라 할 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시중 남녀들을 감탄케 만드는 타령이다. 변강쇠는 성기가 보통 큰 것이 아니며 자신의 성욕을 주체할 수 없어 마땅한 파트너를 찾아 전국을 헤매고 다닌다. 또 용모가 뛰어난 옹녀는 남자를 잡아먹는다는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옹녀가 어엿한 한 여성으로 성장했을 무렵에 동네 마을 남정네들이 달려들지만 관계를 가지면 모두 죽고 만다. 견디다 못한 옹녀는 끝내 마을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곳저곳을 다니던 중 옹녀는 개성서북 청석골에서 우연히 변강쇠를 만나게 된다. 둘이 함께 지리산 속에 들어가 살던 중 변강쇠는 동네어귀의 장승을 뽑아 장작으로 사용하다가 질병을 앓아 일찍 죽는다. 결국 성을 탐닉하다가 천벌을 받아 죽는다는 이야기이다.

타령에 나오는 변강쇠는 정력의 화신이며 신화적인 인물이다. 끓어오르는 성욕을 주체할 수 없어 여러 여자와 성관계를 나누었으며 짝을 찾지 못할 정도였다. 옹녀와 살면서 일도 안하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밤이나 낮이나 운우지정을 나누었으며 성관계를 한번 했다 하면 한 두 시간쯤은 문제없이 지속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성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보고는 변강쇠라는 말을 한다. 그러다 보니 성기확대수술을 하다보면 간혹 변강쇠처럼 만들어 달라며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다. 성기를 크고 우람하게 만드는 수술과 동시에 조루수술도 하여 사정시간을 지연시켜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기확대수술은 정력을 증가시켜주는 수술은 아니다. 단지 그 동안 성기가 왜소하여 고민하였던 부분을 해소시킴으로서 성적인 만족감을 높여줄 수는 있다. 변강쇠전에서도 성기가 크다는 말을 정확히 찾기는 어렵다. 과거에는 성생활에서 성기의 크기는 중요시 여겼던 것 같지 않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기왕이면 성기가 크면 더 좋은 것이 아냐는 생각에 크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 같다. 성적능력이란 심리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 성기크기가 작다고 생각한다면 크게 만드는 수술을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편으론 변강쇠와 같은 절륜한 정력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도 많이 받게 된다. 젊어서 지칠줄 모르던 정력이 나이를 먹으면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는 것이다.

특히 나이 40대를 넘기면서 부쩍 그렇다는 사람이 많다. 모든 일에 체력이 떨어졌음을 실감한다. 며칠씩 밤을 세워 일을 해도 끄덕 없었건만 요즘은 조금만 과로해도 일어나지를 못한다. 젊은 친구들과 어울려 축구를 해도 따라 잡지를 못한다. 섹스를 하려는 생각도 없어지고 어쩌다 발기가 되어도 발기 강직도가 예전 같지 않다.

아쉬운 대로 혹시 정력에 좋아지는 것이 없나 여기저기 찾아다닌다. 정력에 좋다는 것은 뭐든지 하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과거의 체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 속에 빠진다. 일부 남성들은 정력에 좋다는 음식을 일부러 찾아다니며 먹는다. 거리가 아무리 멀고 음식이 혐오스럽고 냄새가 나더라도 몸에 좋다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참아낸다. 배운 바나 지적수준의 높고 낮음과 상관이 없다. 의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서 정력제가 신체에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손을 내밀게 된다. 아마도 자라는 동안 끊임없이 들어왔던 정력에 대한 미신이 그렇게 만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먹어서 신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손해볼 것은 없다는 생각이다.

주변에서 보면 팔도음식이나 먹거리를 소개하면서 반드시 정력이란 단어를 집어넣는다. 정력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한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물에 정력이란 단어가 양념처럼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위약효과라는 것이 있다. 원하는 증상을 해결하는데 약 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가짜약을 먹었는데도 효과를 볼 때 플라시보효과 또는 위약효과라 한다. 이 약을 먹으면 내 병이 틀림없이 낳는다는 믿음이 곧 병을 낫게 만드는 것이다. 통상 의학적으로 식품이나 가짜약 등으로 이런 효과가 30%에서는 있다고 본다. 즉 가짜약을 먹어도 30%는 저절로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정력제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력제란 전부 환상이고 착각일 뿐이다. 만일 진짜 정력제가 있다면 제약회사에서 벌써 약 성분을 추출해 내어서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을 것이다. 현대의학은 나이에 따라 정력이 떨어지는 요인을 호르몬 감소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호르몬 요법으로 어느 정도 떨어졌던 정력을 되돌릴 수 있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난다. 여성호르몬치료를 하면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생리가 불규칙해지면서 얼굴에 홍조를 띠기도 하며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던 여성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살아난다.

최근 남성들도 여성처럼 갱년기가 있다고 보게 되었다. 그 동안 남성들이 성욕이 떨어지고 발기력이 떨어지는 요인을 단순히 나이 때문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남성도 여성처럼 갱년기가 있다고 보기 시작했다. 여성처럼 호르몬 요법을 시행하였더니 정력이 좋아지는 것을 알게된 것이다. 물론 호르몬요법은 비뇨기과에서 전립선에 이상 유무를 확인해보고 이후에 시행하게 된다. 더 이상 정력제를 찾고자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 정력을 증강시키는 법 |

1. 정력제에 대한 미신을 없애고 더 이상 정력제를 찾지 말자.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는 뱀이나 개구리는 정력제가 아니다. 더 이상 못살게 하지 말자.
2.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자. 훌륭한 성생활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심폐기능이 좋아야 한다. 심폐기능을 증가시키는 운동이 성생활에 좋다.
3.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피한다. 콜레스테롤은 동맥 경화증의 원인으로 음경내의 미세한 혈관을 망가트려 발기의 강직도를 떨어트린다.
4. 술, 담배를 피하자. 담배는 미세혈관은 수축시켜 제대로 발기가 되는 것을 막는다.
5. 식사량은 과식을 피하고 가급적 소식을 하는 것이 오래 산다고 보고되어 있다.
6. 육류보다는 과일 및 야채류 섭취를 많이 한다. 육류의 과도한 섭취는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되며 발기부전의 원인에 하나이다.
7. 과도한 스트레스는 정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하여 성생활을 기피하게 만든다.